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일본은행, 추가금융완화 조치 보류

- 일본은행은 최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**현행 제로금리정책을 지속하고 추가금융완화조치 시행을 당분간 보류하는 등 현재의 통화정책을 현상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함.**
 -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 시행중인 통화정책을 현상 유지하기로 정책위원회(총재, 부총재 2명, 심의위원 6명으로 구성)의 만장일치로 합의하고, 최근 마지막 회의였던 11월 5일 이후 내수경기 및 금융시장의 큰 폭 하락이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금융완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기로 함.
 - 또한 정책금리(금융기관들이 익일 상환하는 무담보 거래금리)의 유도목표를 연 0~0.1%로 동결해 실질적인 제로금리정책 지속하는 동시에 30조엔 규모의 은행권 대출 프로그램과 5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 조치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함.

- 이미 시행 중인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부분 소진되고 있고, **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투자 및 소비심리를 악화시켜 경기회복 둔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어 향후 추가 부양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.**
 - 일본은행은 현재의 완만한 내수경기 회복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, 일본은행의 부동산 투자신탁과 상장지수펀드(ETF) 등의 자산매입 조치도 최근 일본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등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있음.
 - 그러나 최근 4/4분기 국채 2년물 및 10년물 수익률이 2008년 2/4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차입비용이 높아져 기업과 가계의 지출 및 투자심리 악화가 초래되는 등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임.
 - 전문가들은 분기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 이미 시행된 부양조치 효과가 거의 소진되고 있고, 일본은행도 최근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자산매입 확대 등 추가 부양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음.

(아사히신문, 12/21)